

아무도 가지 않은 길

2020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여러분의 나눔으로
장애인과 함께한 15년의 여정,
당신이 바로 푸르메입니다.

INTRO

인사말	04
푸르메 인터뷰: 이해인 수녀	06

1

빛나는 순간

2020 10대 포토뉴스	10
숫자로 보는 2020년	12
투명한 결산	14

2

함께 나눔

모금 및 배분사업	17
아름다운	24
기억의 조각	
푸르메와 사람들:	26
김성수 명예이사장	

3

푸르메소셜팜

장애청년의 희망이 될 농장	29
우리 이만큼 왔어요!	30
푸르메소셜팜에 도착한 편지	32
푸르메와 사람들:	34
이지선 홍보대사	

4

같이 성장

의료사업	36
자립사업	42
사회통합사업	50
장애인식조사	54
푸르메와 사람들:	56
이종범·이정후, 김민재 홍보대사	

5

푸르메 소개

미션·비전·주요사업·조직	58
이사회·홍보대사·위원회	59
산하기관 현황	61

사회로 나아가는 장애 청년들의 튼튼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사회,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췄던 2020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가 잊고 살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것, 야외에 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 누군가와 마음 편히 대화하는 것... 그간 당연했던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삶이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듯이, 푸르메재단은 지난 한 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무엇보다 재단 산하의 복지관들과 여러 기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지난 2016년 문을 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올해 개원 5주년을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장애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애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재활치료를 받고 잘 성장하도록 더욱 정진하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푸르메소셜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과 친환경 케어팜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청년들의 희망 일터가 지어집니다. 올해 가을이면 푸르메소셜팜에서 맛있는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며 행복하게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 농부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꽃 피울 밝은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이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덕분에 한 걸음 나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푸르메재단이 가는 길에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2021년 초봄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 지 원**

이해인 수녀



지난 일 년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시련 앞에 많은 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인 수녀님께 용기와 희망, 사랑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푸르메재단을 향한 조언도 함께 들었습니다.

Q1.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수녀님께 지난해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A. 그야말로 1년이 10년 같은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힘들었고, 코로나19라는 병으로 우리 역시 국민적 우울증에 빠져 웃음을 잃은 한 해라고 기억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결코 혼자 살 순 없다는 것을 절감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Q2. 2020년 푸르메재단이 설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재활병원을 열고, 푸르메소셜팜을 착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푸르메재단과 오랜 인연을 맺고 함께해 주신 분으로서 재단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A.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푸르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럿이 힘을 모은 협동과 인내의 열매라고 여겨집니다.

Q3. 푸르메재단이 발달장애 청년의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경기도 여주시에 짓고 있습니다. 율가를 농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발달장애 청년들이 토마토와 버섯을 키우며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 푸르메재단이 이 농장을 어떤 모습으로 가꿔나가길 바라십니까?

A. 부디 장애를 지닌 친구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키우는 희망적인 일로 본인들도 더불어 생명 가득한 희망을 심고 키우고 거두는 ‘푸르메소셜팜’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피어오르고 속히 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주시길 소망합니다.

Q4.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푸르메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장애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비장애인들(이웃과 가족 포함)의 편협하고 그릇된 인식 개선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꾸준히 연구·검토하는 재단이 되면 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다 예비 장애인일 수 있는데, 늘 차별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적이 많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서 특강을 하고 어느 어머니에게 책 사인을 해드리면서 왠지 찢찢매매는 표정으로 미안해하니깐 ‘수녀님 너무 마음 아파하진 마세요. 이젠 우리도 나름 잘 적응하며 기쁘게 살고 있으니 까요’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자연스레 대하기보단 어느 틀에 가두고 그저 불쌍한 존재로만 보는 동정심만 가득했던 거지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어딘가 좀 불편할 뿐인 거야’라는 인식을 갖는 태도가 저 자신부터 결여된 것이지요.



Q5. 일 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차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푸르메재단과 우리 사회, 시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수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무엇보다 조그만 씨앗 하나에서 커다란 열매가 태어나듯이 작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는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봉사와 섬김을 받은 장애인도, 이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도 서로가 서로를 예의 바르게 존중하고 감사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화가 나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고운 말, 선한 말, 사랑의 말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최근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짧은 삶이 바르고 가치 있어질까요?

A. 힘들다고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한 줄의 좋은 책을 읽거나 덕담을 듣거나 무어든지 좀 더 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려는 용기도 있어야 하지요. 때

일 다시 오는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관리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참됨과 선행과 아름다움의 집을
내가 먼저 짓기 시작하여
더 많은 이웃을 불러 모으게 하소서

나 아닌 그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해 주길 바라고 미루는
사랑과 평화의 발을 일구는 일
비록 힘들더라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Q7. 올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해 아래 사는 이의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시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빛나는 순간

2020 10대 포토뉴스
숫자로 보는 2020년
투명한 결산

2020 10대 포토뉴스



3.9.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대표와 함께한 재단 설립 15주년 기념 캠페인 ‘세상 밖으로’



4.28. 장애청소년을 위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열린재활치료실’ 개소



6.18. 2019년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 가입 후 총 5억 원을 기부한 전 은평구청장 권오록 기부자



6.18. 기부 문화 확산 및 저변 확산을 위한 하나은행·푸르메재단 기부신탁 업무협약 체결



7.19.~27. 1,000명의 러너와 함께 달린 언택트 레이스 ‘미라클365 버추얼런’



10.29. 발달장애 청년 농부의 희망일터 푸르메소셜팜 착공식



11.23. 장애어린이의 마음을 다독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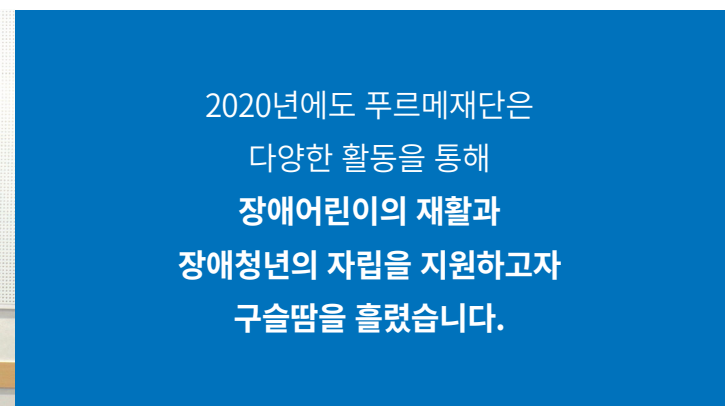
12.4. 청와대 나눔단체 초청행사 참석



12.14. “장애어린이에게 용기와 즐거움을” 사석원 작가 <노래하는 호랑이> 조형물 설치



12.29. 한국 프로야구의 과거와 현재를 빛낸 이종범·이정후 부자 홍보대사 위촉



2020년에도 푸르메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0년



배분사업

3,609명

치료, 교육, 문화, 상담, 생필품 등을
지원받은 장애어린이와 장애인, 가족



의료사업

190,910명

장애어린이 통합형 재활의료 서비스,
장애인 전문 치과치료, 보조기기 이용자



자립사업

205,617명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직업훈련 및 고용, 지역연계 서비스 이용자



사회통합사업

40,884명

장애인·비장애인 스포츠 및
독서 활동 이용자



운영프로그램

1,779개

의료사업, 자립사업, 사회통합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192개

2020년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1,349명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준 이웃



협력파트너

656개

좋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한 기업과 기관



푸르메 가족

15개

어린이재활치료 기관,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푸르메재단 산하기관



새로운 가족

1개

푸르메재단 신규 산하기관
'푸르메소셜팜'



푸르메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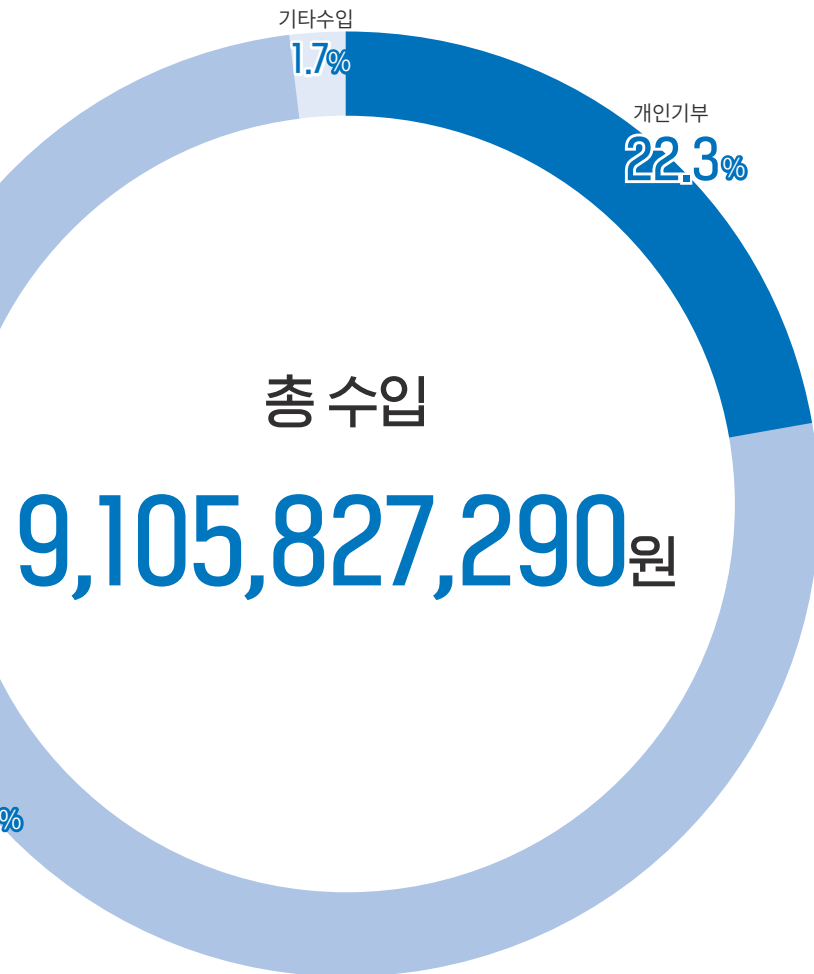
532명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푸르메재단 사무국과 산하기관 임직원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푸르메재단이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투명한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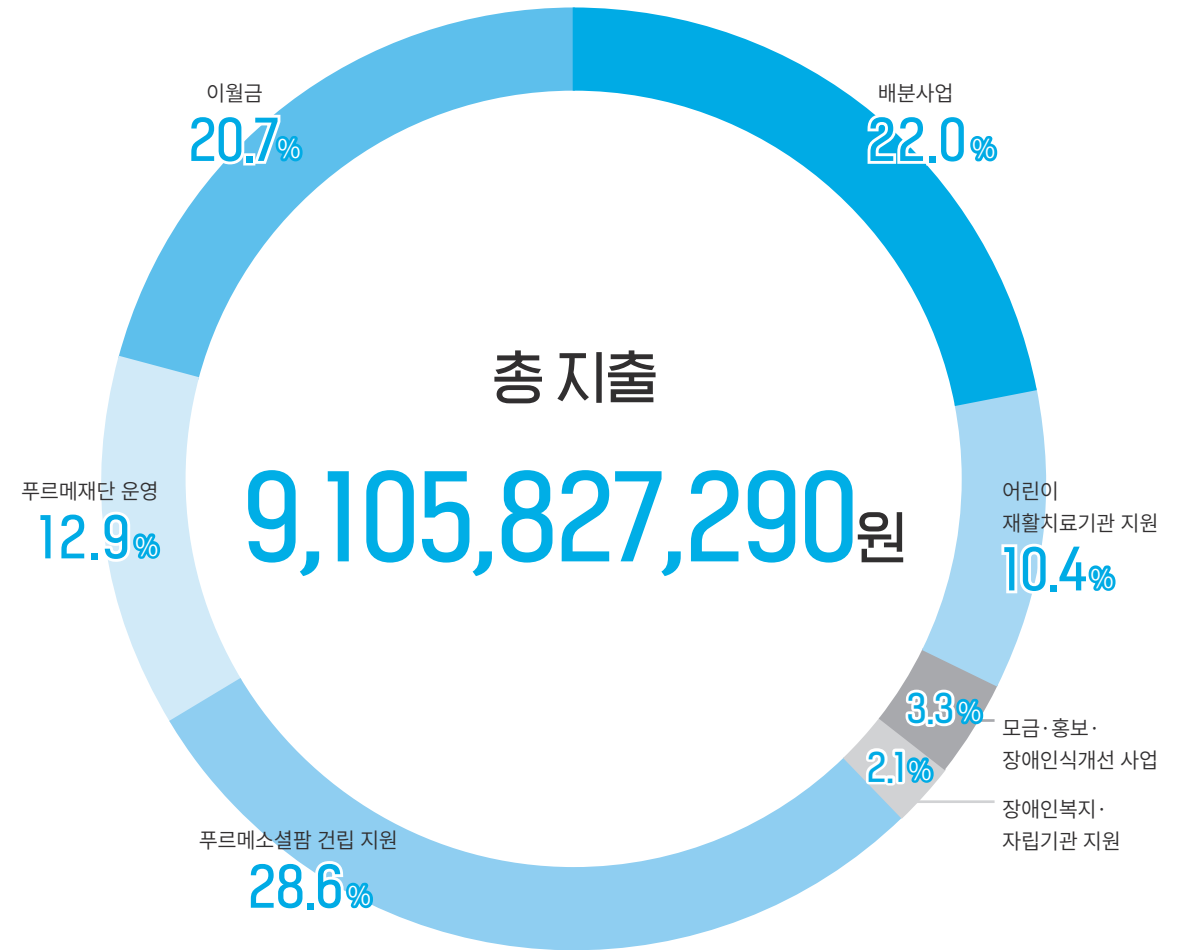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하기 위해 연 3회 정기이사회와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철저한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원)
● 개인기부	개인이 모은 기적의 씨앗	2,030,677,233
● 기업기부	기업이 전한 희망의 손길	6,915,852,014
● 기타수입	이자 수입 등 기타 잡수입	159,298,043

한국가이드스타 최고 등급 선정

2020년 푸르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효율성 부문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 만점 및 크라운 인증을 동시 획득했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원)
● 배분사업	장애어린이 및 장애자녀 가족 치료, 교육, 문화여가 지원	2,004,072,817
● 어린이 재활치료기관 지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재활센터, 종로아이존 운영 지원	941,282,880
● 모금·홍보·장애인식개선 사업	기부자 개발 관리, 모금, 홍보, 출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99,180,369
● 장애인복지·자립기관 지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운영 지원	194,176,420
● 푸르메소셜팜 건립 지원	푸르메소셜팜 건립비 및 건립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사업 지원	2,605,212,059
● 푸르메재단 운영	인건비, 사무비, 공공요금 사용	1,177,577,332
● 이월금	2021년 배분사업 및 푸르메소셜팜 건립 기금	1,884,325,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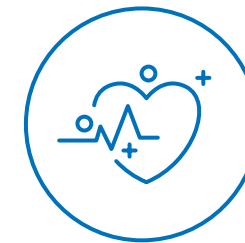
함께 나눔

모금 및 배분사업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
푸르메와 사람들: 김성수 명예이사장

모금 및 배분사업

한 해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나눔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이 희망을 키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늘보다 더 밝은 세상을 열기 위해 힘썼습니다.

모금액



8,946,529,247 원

배분사업 지원자



3,609 명

모금 사업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다섯 살이 된 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어린이들과 함께 튼튼하게 성장한 것은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어진 덕분입니다. 제2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 자치단체와 손잡고 국내 처음으로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희망ilter '푸르메소셜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미라클365 버추얼런 언제 어디서나 달리는 우리는 기적의 러너

매년 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미라클365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기부 마라톤에 참가하는 언택트 방식의 버추얼런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적의 레이스를 펼쳐준 신 1000명의 러너가 마음으로 함께 달려 모은 3650만 원의 기부금은 어린이재활병원의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로 전액 전달됐습니다.



2

한걸음의 사랑 5주년 특별 이벤트 전국~~~ 걷기자랑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함께 걸으며 기부하는 푸르메재단 기부자모임 한걸음의 사랑. 5주년을 맞이해 누구나 걷기에 장애가 없는 무장애숲길을 산책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울긋불긋 오색빛으로 물든 자연을 만끽하고 장애를 이해하는 멋진 가을날이었습니다. 일상 속 장애에 대한 배려가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무장애숲길을 찾아 걸어볼까요?



3

특별한 날, 특별한 기부 미라클데이,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하는 특별한 날, 당신의 나눔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2020년에도 많은 분이 기부 캠페인 미라클데일로 특별한 날, 가장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월급의 10%를 꾸준히 저축하여 전달한 직장인, 매년 아이들의 생일마다 선물 대신 기부를 택한 부모, 생전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행을 15주기 추모 기부로 이어간 아들, 그리고 스타의 생일을 기부로 축하한 팬클럽 등 인생의 소중한 날을 특별한 기억으로 빛낸 이들로 인해 푸르메재단도 함께 빛났습니다.



4

얼라이브 마음채움 캠페인 진심 보내고, 기부 채우고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기란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생생함으로 꽉 채운 멀티비타민 얼라이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보내 얼어붙은 연말을 녹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1건당 1000원이 기부되어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했습니다. 한 달간 총 1만2000여 명이 참여해 2020년의 마지막을 훈훈한 온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5

스폰지밥과 함께하는 회오리모금한 기적의 소원을 빌어요!

전시 <스폰지밥의 행복을 찾아서>에서는 언제나 유쾌해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스폰지밥과 비키니 시티 친구들, 그리고 소원의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소원의 우물로 새롭게 탄생한 회오리모금함에서 장애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고 소원도 빌며 재미와 행복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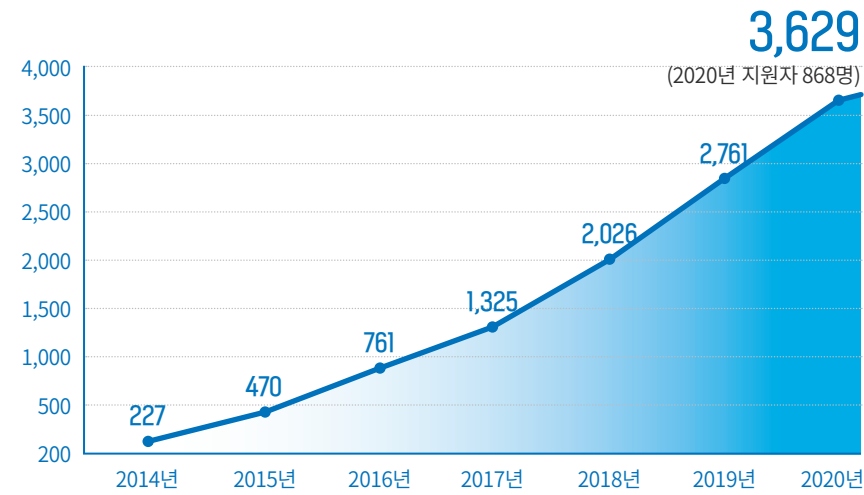


배분 사업

1. 지원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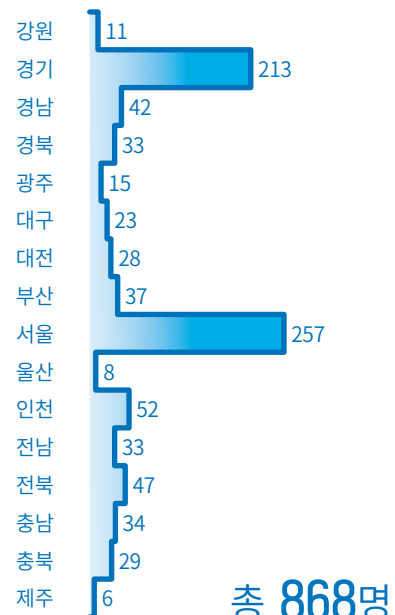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매년 푸르메재단은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이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아 꿈을 키우고, 당당히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지원자 수(누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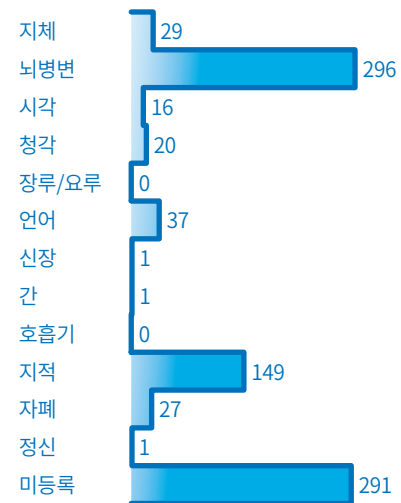
※장애가족 생필품 및 장애인식개선 도서 지원 제외

2020년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명)



총 8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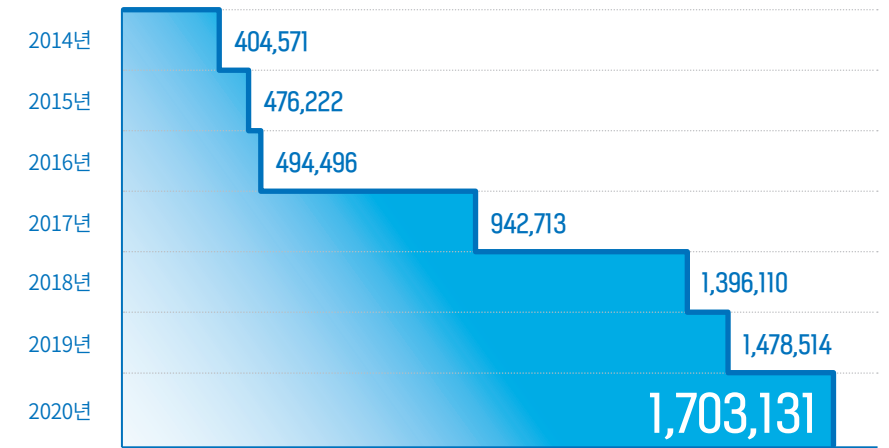
2020년 장애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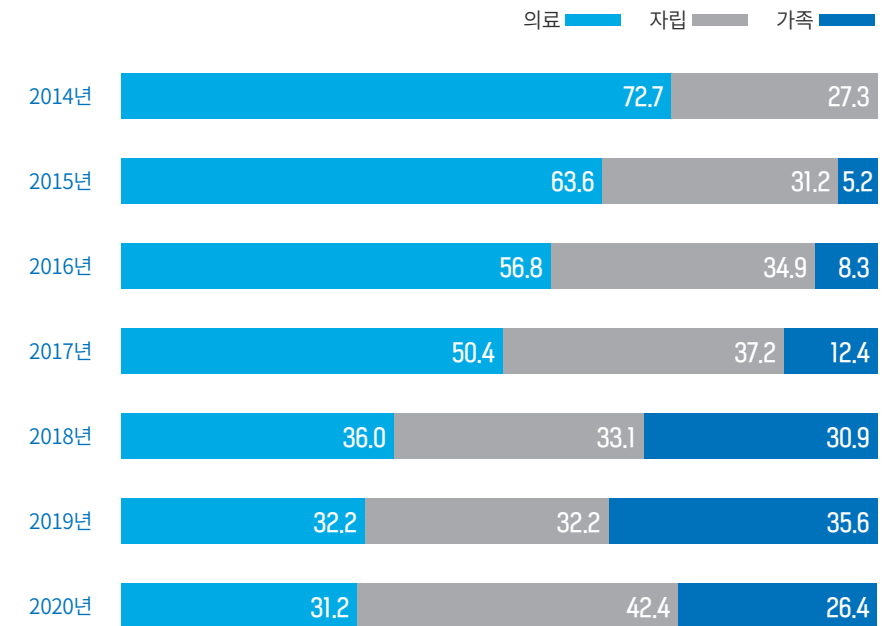
총 868명

2. 지원규모

지원 예산 (단위: 천 원)



지원 항목 (단위: %)



푸르메와
함께한
파트너



배분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여행 및 외부행사를 지양하고 비대면 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아와 청소년에게 재활치료, 보조기구를 직접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형제, 장애부모의 자녀 등을 위한 교육비 및 심리상담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긴급 지원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재활치료·의료비 162명 | 치과치료비 7명 | 희귀난치의료비 97명



태어난 지 3일 만에 청색증을 동반한 경련 증상을 보였던 하진이는 100일 넘게 지속된 경련으로 성장을 멈췄어요.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료용 대마(CBD 오일)를 복용한 이후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꺼냈어요. 3개월 치 약값이 160만 원인데, 형편이 나빠지면서 구입하기가 힘들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예산도 삭감되면서 어려움은 커졌지만, 다행히 재활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게 됐어요. 우리 하진이에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아요.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자 백하진(가명) 어머니



장애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견했음에도 비용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아가 시의적절한 진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수술,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아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립

보조기구 308명 | 정형신발 11명 | 장애인아 교육비 44명



뇌병변 뇌성마비로 우측다리와 오른손이 불편한 상명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후 혼자서도 발을 딛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랍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스스로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형제들과 숨바꼭질도 같이하게 됐어요. 덕분에 상명이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참 고맙고 뿌듯해요.

-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자 이상명 어머니



장애인아에게 보조기구는 편의기구가 아닌 필수품입니다. 때로는 발이 되고, 때로는 몸을 지지하는 신체 일부로써 자율적인 생활을 도와 이동권을 보장했습니다. 장애인아와 청소년이 잠재적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가족

심리치료비 111명 | 비장애형제 교육비 128명 | 생필품 241명 | 장애인식개선 도서 2500개소



영어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즐거워요. 학원에 갔다 오면 그날그날 배운 영어단어들을 방안에 붙이고 있어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엄마랑 아빠한테도 알려주려고요. 제 꿈은 가수인데, 영어도 열심히 배우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해서 나중에 엄마와 형이 좋아하는 이찬원 같은 가수가 될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엄마의 유일한 취미가 음악 듣기거든요. 꼭 유명한 가수가 돼서 엄마한테 제 노래를 마음껏 들려주고 싶어요!

-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교육비
지원자 김우혁



장애인아를 둔 부모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심리상담, 돌봄에서 소외된 비장애형제가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용품 및 생필품을 선물했습니다. 전국에 장애인식개선 도서 <그냥, 은미>를 배포했습니다.

아름다운

2020년,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해준 기부자님과 함께라서 희망찬 발걸음은 계속됐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널리 퍼뜨려 새로운 나눔의 새싹을 키워내는 기부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월급의 10%로 행복을 산 청년

박재현 기부자

장애청년을 위한 푸르메소셜팜 건립에 1천만 원을 아낌없이 내놓은 30대 청년.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눔의 기쁨을 알고 나서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취업 후 월급의 10%씩 기부 목적으로 저축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부터 떼어놓은 돈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를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기부이지만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제가 얻는 행복이 훨씬 더 큼니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 한들 나누는 기쁨만 할까요?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아이에게 선물한 기적

조아영 기부자 어머니

매년 4월 11일, 소중한 아이의 생일에 선물 대신 기부를 택한 가족이 있습니다. 딸처럼 예쁜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푸르메소셜팜 건립기금을 보태면서 국내 장애인 복지가 한층 더 성장할 거란 희망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꼭 알게 됐으면 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꽃들

김주원·김주하·김도현 기부자 아버지

장애어린이들의 치료에 보탬이 되고자 세 자녀의 이름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건넨 소방관. 직업상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기부증서를 보며 나눔에 대해 생각하고 평소 잊고 지냈던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모두가 힘겨운 순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희망의 물줄기를 뿜어내는 가족이 있어 위기 속에서도 꽃을 피워냅니다.



아버지같이 살고 싶습니다

김영호 기부자

아버지의 15주기를 맞아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았던 아버지를 특별하게 기억해 봅니다. 평소 동전을 모아 연말에 기부한 아버지의 선행을 지켜보며 자란 아들은 장애어린이들이 바로 서도록 돕는 작업치료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매 순간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치료사의 바람입니다.” 푸르메소셜팜 건립에 기부한 이유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한걸음이 만든 또 다른 사랑

김민주 기부자

“달리기도 즐기는 제가 걷는 건 왜 못하겠나 싶었죠. 더욱이 장애어린이를 위해서라면요.”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며 운동을 즐기는 교사는 한걸음의 사랑 5주년 특별이벤트에 참가해 장애물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숲길을 걸었습니다. 걷는 즐거움에 기부를 더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장애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참가했습니다. “무장애숲길을 통해 일상 속 장애에 대한 배려를 몸소 느끼길 희망해요.” 걷기를 통한 따뜻한 나눔이 세상 어딘가 작은 변화를 이룰 것 같은 기대감을 샘솟게 합니다.

기부자의 말

김미령

아름다운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김여진

아직 학생이라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사회인이 되면 더 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소윤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친구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덕원

입사 1주년을 기부로 소소하게 기념합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김정아

실제로 장애어린이에게 기금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해 푸르메재단이 마음을 다해 힘써주세요. 기부금 반드시 투명하게 써주세요!

정세희

첫 기부,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안정현

좋은 일 하는 재단을 잘 알아갑니다. 앞으로도 생 각날 때마다 종종 들르겠습니다.

기억의 조각

푸르메와 사람들:
김성수 명예이사장

작은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누군가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푸르메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성수 대한성공회 대주교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 큰 어른인 그에게 푸르메소셜팜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강화도 우리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성수

대한성공회 대주교
푸르메재단 명예이사장

발달장애인의 행복을 위하여

김성수 주교는 1974년 성베드로학교를 설립한 초대 교장입니다. 그곳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이끌고, 졸업 후 받아주는 곳이 없자 콩나물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만난 어린 학생들이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에서 함께 늙어가는 동료가 되어 매일 서로를 마주합니다.

장애인들이 나이를 먹으며 김성수 주교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아흔이 넘은 지금도 그 고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시간은 비장애인보다 20년 정도 빨리 흘러요. 환갑이 된 장애인의 신체나이는 80세 정도 된 비장애인과 비슷하죠. 더 일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도 나이 많은 부모가 그들을 돌볼 수가 있나요. 맘 편히 여생을 보낼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우리마을이 양로원 건립이라는 새로운 꿈을 시작하던 중 큰일이 닥쳤습니다. 콩나물공장이 화마에 휩싸인 것입니다.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고 장애인들은 한순간에 모든 일상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사정을 들은 이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화재에 급히 달려와 불길을 잡았던 소방관들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매일 119원씩 1년간 모은 돈을 건넸습니



다. “불 꺼주고 기부까지 해주다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마을의 콩나물을 모두 구매했던 풀무원은 공장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사이 일을 할 수도, 집에 머물 수도 없는 직원 10여 명의 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2,500여 명이 십시일반 도움을 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가 큰절을 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길을 닦아온 김성수 주교에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설립 15주년을 맞은 푸르메재단이 장애청년의 자립을 위해 푸르메소셜팜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에 앞선 이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은 무조건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발달장애인은 각자 특성이 다 달라서 기존 데이터가 큰 의미 없어요.”

김성수 주교는 주변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상추를 키웠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실패했어요. 다행히 콩나물은 풀무원에서 전량 구매해줘서 지금까지 우리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뭐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어요.”

장애청년의 좋은 일자리, 푸르메소셜팜

다행히 푸르메소셜팜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건립비 후원과 함께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주시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마음을 모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는 건설비를 대폭

낮췄지만, 장애인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자체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활용했던 여주 땅을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기부한 이상훈·장춘순 부부는 푸르메소셜팜 건립의 일등공신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도움 덕분에 푸르메소셜팜은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성인이 되면 더 할 일이 없고, 갈 곳도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김성수 주교는 응원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지금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야 있나요.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들이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푸르메소셜팜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발달장애인을 잊지 말고 살피달라는 바람도 잊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을 맞아서 장애인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여유마저 없어진 것 같아요. 간헐히 생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특히 라면도 끓이기 힘든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모두가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밀려난 장애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평생을 바친 김성수 주교. ‘행복하려고 애쓰는 마음조차 욕심’이라는 말에 그가 걸어온 삶의 전부가 녹아 있습니다. 고귀한 걸음, 사뿐히 새겨놓으신 그 발자취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푸르메소셜팜

장애청년의 희망이 될 농장
우리 이만큼 왔어요!
푸르메소셜팜에 도착한 편지
푸르메와 사람들: 이지선 홍보대사

장애청년의 희망이 될 농장

발달장애 청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푸르메소셜팜'은 장애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희망의 농장이자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푸르메소셜팜 여주농원

시민과 기업, 기관, 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 스마트팜 기반 발달장애 청년의 일터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약 4,000평



주요 사업

재배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가공 스낵토마토, 잼/페스토, 건조버섯 등
지역복지 견학·체험 프로그램, 문화·여가시설



사업 목표

장애인 직무개발/훈련
사회적 농업공동체 구축



협력 파트너

여주시청, SK하이닉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린플러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 왜 농업일까요?

농업은 치유의 힘을 지녔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기르며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지요. 매일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작물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작업 환경과 방법이 달라져 단순 반복 업무와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치 있는 업무를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돌봄을 받던 객체에서 돌봄을 주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 그 농장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이러한 생각에서 탄생한 푸르메소셜팜은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 농업 '스마트팜'과 미래 농업, 사회복지의 대안 '케어팜'이 결합된 발달장애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농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권리를 실현합니다.

| 푸르메소셜팜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나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하는 스마트팜은 국내 최초이기에 효율적이고 적합한 직무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에 직무 매뉴얼이 잘 설계되어야 다른 스마트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역농민과 지역사회, 협력 파트너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낯설고 어렵더라도 발달장애 청년들과 그 가족이 행복한 첫 농장을 짓겠습니다.

우리 이만큼 왔어요!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희망일터가 될 푸르메소셜팜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경기 여주시에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바빠 움직였던 푸르메소셜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까요?

2018~2019

- 2018. 05.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푸르메소셜팜 프로젝트 추진
- 2019. 03. 이상훈·장춘순 부부 경기 여주시 오학동 농장부지 기부협약
- 2019. 08. SK하이닉스 푸르메소셜팜 프로젝트 기부협약

2021~

- 2021. 03. 유리온실·가공센터 완공 및 시험재배
- 2021. 05. 발달장애직원 19명 추가 채용
- 2021. 08. 베이커리카페 및 복합사무동 등 부대시설 완공
- 2021. 10. 푸르메소셜팜 여주농원 그랜드 오픈

2020. 05.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설립 MOU 체결

“발달장애 청년을 위해 손을 맞잡았어요.”



2020. 09.

푸르메여주팜 설립

“푸르메소셜팜의 자회사인 푸르메여주팜은 여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예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요.”



2020. 10.

푸르메소셜팜 착공식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희망의 첫 삽을 떴어요.”



푸르메여주팜 발달장애직원 16명
채용 및 훈련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2020. 10.~12.



짧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의지와 능력을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면접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발달장애인은 더욱 긴장해서 밤새 연습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의 긴장을 풀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면접관들은 전문가와 함께 질문지를 분석했고,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일을 하고 싶단 열정이 높을지라도, 누구나 면접장에 들어서면 귀가 먹먹해지고 말문이 막히기도 한 것처럼 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높은 경쟁률과 쉽지 않은 면접을 극복하고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푸르메소셜팜 1기 직원들은 스마트팜에서 필요한 직무훈련과 이론교육을 받으며 끈끈한 동료애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처럼 매번 낯설고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 마련이죠. 푸르메소셜팜의 첫 발걸음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희망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임지영 푸르메소셜팜TF 팀장-

푸르메소셜팜에 도착한 편지

국무총리
정세균



현재 우리나라에는 24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지만, 그 처지는 열악합니다. 장애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로 현장에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과 교육 등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좋은 일터 푸르메소셜팜이 설립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를 향한 연대의 손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푸르메소셜팜에서 각자 마음에 품은 높고 푸른 꿈을 마음껏 실현하길 바랍니다.

배우
다니엘헤니



발달장애 청년 스스로가 업무능력을 습득해 멋진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푸르메소셜팜이 경기도 여주에 건립된다는 멋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우
정유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푸르메소셜팜이 지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농장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기대가 무척이나 큼니다. 무사히 완공돼서 시민들의 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엔도르핀이자 활력소 신영아, 안녕?

어느덧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지도 두 달이 되었구나.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네가 당당히 취업에 성공해 정말 뿌듯하다. 신영아와 빨리 친해지기 위해 장난스럽게 다가가다가도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내기도 했는데, 매번 넓은 마음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오래전 수업 중 신영아가 선생님에게 ‘힘들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널 위로하긴커녕, 더 꾸짖었던 적이 있지? 선생님 또한 장애가 있기에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신영아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인내하고 더 큰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단다. 그래서 더욱 수업 시간만큼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도 잘 따라와 준 신영이는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에 곰돌이 푸 같이 푸근하고 따뜻한 학생이었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지도해주지 못했지만, 멋지게 사회인으로 나아간 우리 신영이 정말 대견하고 축하해.

이제 차근차근 월급을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보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선생님한테 연락해줘. 선생님은 푸르메여주팜에서 훌륭한 재배사로 거듭날 신영이를 위해 항상 응원할 거야. 곰돌이 푸같이 푸근한 내 제자 신영아, 앞으로 꽃길만 걸길 바랄게.

이천제일고등학교 졸업생
배신영 재배사

담임선생님
이지연

푸르메여주팜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늦가을, 여주 마리오농원에서 처음 여러분과 마주한 그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그 날의 얼굴 하나하나를 생생히 떠올려봅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눈망울은 긴장했지만, 의욕이 가득 차 보였어요. 마리오농원 사장님과 재배사님의 교육을 받으며, 전문가 못지않게 질문도 했었지요? 그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한 희망의 문을 활짝 열고 싶어졌습니다.

여주시 공동작업장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각자의 상황이나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맡겼지만, 일이 손에 익기까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 팀장님, 그리고 재배사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직원들. 끝까지 잘 따라와 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 다른 곳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친구, 잠시 가정에 머물렀던 친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푸르메여주팜에 모였을 텐데요. 그동안 외롭고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 향기가 가득 밀려오는 것만 같아요.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희망의 단비를 뿌릴 거예요. 훌륭한 거목이 되어 기쁨과 자신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나의 푸르메 아들딸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매일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간다면 우리 사회 멋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길.

푸르메여주팜

직무지도
선생님
이난영

푸르메와 사람들:
이지선 홍보대사



발달장애 청년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곳, 푸르메소셜팜을 떠올리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지선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도 2019년 기준 3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의 고용률은 27%로 전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많은 장애어린이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삶의 재활을 돕고자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발달장애인들에게 급여를 받으며 노동을 수행하는 즐거움과 동시에 교육과 돌봄, 나아가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주로 치유농업(Agro-Healing)으로 알려진 개념이지만, 푸르메재단이 추구하는 일터는 여기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유럽, 일본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 치유와 돌봄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도 농업

활동이 발달장애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치유농업은 주로 돌봄과 교육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푸르메재단이 만드는 푸르메소셜팜은 첨단 ICT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습도와 온도 같은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맞추기에 부족한 농업기술과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산성을 높여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에서 장애인은 농작물을 키우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다운 일을 하며, 돈을 벌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받는 객체에서 돌봄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이 그토록 바라던 보통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곳, 푸르메소셜팜을 그려보면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가이 성장 E O O

의료사업
자립사업
사회통합사업
장애인식조사
푸르메와 사람들: 이종범·이정후, 김민재 홍보대사

의료 사업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첫 단추입니다.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치과치료,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통합재활치료



71,166명

치과치료



7,950명

보조기기



111,794명

| 의료사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 지자체의 힘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장애치료를 돕기 위해 열린재활치료실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재활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어린이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치과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비용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900여 명에게 비급여 진료비 3억여 원을 지원해 장애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열린재활치료실 이용자 정유경 어머니

국내에 청소년을 위한 재활치료 공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춰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생겨서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치료 내용과 환경이 모두 청소년의 특성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인원 61,812명

재활의학과
31,543명

정신건강의학과
17,967명

소아청소년과
7,272명

치과
5,030명

| 의료사업



장애어린이의 조기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의원과
장애인 전문 치과의원

장애어린이의 전인적 재활을 목표로 감각통합치료, 스누젤렌, 놀이치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확대했습니다. 재활치료실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어린이가 넓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치과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치솔질 교육 등 구강병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이용인원 11,724명

재활치료
8,804명

치과치료
2,920명

재활치료 환자 정예준 어머니

아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없다 보니 재활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었어요. 푸르메재활센터를 다니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원으로 아이가 치료받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 이 같은 지원이 많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점차 밝아질 거라 기대해요.

| 의료사업



발달장애 어린이의 치료 및 가정·학교생활을 돕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발달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영역의 개별 및 집단치료를 실시해 언어 및 인지, 사회성 향상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함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치료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이 느낄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별 가정 치료, 온라인 부모교육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인원 9,927명

재활치료
5,580명

가족지원
3,879명

교육·연계
468명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 참가자 박희영

온라인에서 진행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에 18주 동안 참가했어요. 부모의 칭찬이 늘어나며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익히고 배워나가는 데 가정에서 지원해줄 방법을 배워 큰 힘이 됩니다.

| 의료사업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따뜻한 기술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기기센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역을 넓히고자 기존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별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보일러TV(보조기기 위드 러브 TV)로 통합하고, 다양한 보조기기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했습니다. 소독의 중요성이 커져 공공기관에 비치된 이동보조기기의 소독 세척을 강화했습니다. 보조기기 언택트 서비스존, ACC 존을 설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보조기기센터 이용자 이보희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편의시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삶과 닮았어요.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사회와 나를 단절시킨 계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맘껏 다닐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날만을 기다립니다.

이용인원 85,942명

보조기기 임대

85,307명

제작·개조·수리

193명

소독·세척

160명

무상지원

282명

| 의료사업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기기센터

맞춤제작을 비롯 보조기기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기존 보조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고 구매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휠체어가방, 리폼의류, 첨단보조기기, 일상생활보조기기 등 각 양각색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목재를 이용한 트랜스보드 겸 램보드 개발, 3D프린터를 이용한 구강보조기기 개발 및 지원에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첨단보조기기 지원자 전형우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 저는 좌측 대퇴부 절단으로 그동안 유압식 의족을 사용했는데 운동 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을 때 힘을 받지 못해 훈련에 제약을 받곤 했어요. 전자의족을 지원받은 뒤에는 양발로 훈련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리막길도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 일상생활도 한결 편해졌어요.

이용인원 25,852명

보조기기 임대

24,650명

제작·개조·수리

276명

소독·세척

446명

무상지원

480명

자립 사업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지대가 있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풍부한 지역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90,366명

일자리



54,337명

지역네트워크



60,914명

| 자립사업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달라진 일상에 맞춰 장애인과 가족의 안전, 건강, 일상, 재활을 지원했습니다. 복지관이 아닌 각자 공간에서의 재활과 건강증진, 소통, 정보제공, 이웃 관계를 생동하게 만드는 나눔 활동 등 새로운 방법과 기술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변함없는 변화로 이용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공유의 장을 펼쳐 연대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연대 시민옹호활동가 이화진

장애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어요. 시민옹호활동가와 일대일 관계에서 나아가 지역주민 여럿이 취미와 친분을 나누는 작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코로나19로 기관이 문을 닫았을 때도 관계가 이어지고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용인원 97,252명

직업 지원
13,143명

교육·치료 지원
38,890명

가족 지원
22,212명

지역 연계
23,007명

| 자립사업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복지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수중운동실 이용자와 자조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지역 내 공공 편의시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입수 리프트와 이동식 경사대 설치, 수중 휠체어 배치 등 질적 향상이 이뤄졌습니다. 수영장의 장애인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비장애인과의 대면할 일이 늘었고, 장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공공 이용

복지관 이용자 이경윤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지역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포기하게 만든 입수 사다리는 여전히 저에게 큰 장벽이죠. 복지관 수중운동사와 함께 시민회관 수영장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고, 제 의견에 공감하며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셨어요. 현재는 입수 리프트가 설치되어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안전하게 지역 수영장을 이용하게 됐어요.

이용인원 **58,492명**

직업 지원 3,698명	교육·치료 지원 18,236명
가족 지원 1,507명	지역 연계 35,051명

| 자립사업



**장애인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을 선물하는 복지관**

졸업을 앞둔 장애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19개 학교와 협업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진로 교재 개발을 통해 성인기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직업훈련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 교재, 온라인 교육, 1:1 맞춤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취업준비맞춤훈련반 취업자 이영민

같이 직업훈련을 받은 동료들이 하나둘 직업을 갖게 되면서 저도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지관의 도움으로 편의점에 처음 실습을 나갔는데, 계산부터 청소, 물건 정리까지 모든 업무가 마음에 들었죠. 때마침 기회가 찾아와 편의점에 취업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이용인원 **20,461명**

직업 지원 9,393명	교육·치료 지원 7,555명
가족 지원 657명	지역 연계 2,856명

| 자립사업



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로
품위 있는 삶을 가꾸는 일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랜 휴관에도 한마음으로 임가공업무에 집중한 결과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삭감 없이 100% 지급됐습니다. 발달장애인 디자인 공작소 아텐토(ART'NTTO)는 천연 염색 마스크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모아 쇼룸을 구성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한 동아리 활동은 동료 간 유대감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왔습니다.



공작 동아리



아텐토 디자인팀 안미영

사람들이 제가 그린 그림을 관심 갖고 봐줄 때 좋았어요. 색깔이 예쁘다고 칭찬받을 때가 가장 기뻛죠. 올해는 동료들과 함께한 연극동아리 활동이 짧아 아쉬웠지만, 내년을 기대해 볼래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참!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용인원 7,248명

직업 지원

6,731명

교육 지원

517명

| 자립사업

PaNiS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제빵기술 교육 및 고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비자에게 더욱 위생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과제빵부 작업장과 파니스 카페 리모델링으로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카페 판매가 힘들어지면서 외부 납품과 추석,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판매 등 새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보호작업장 가족의 날'에는 케이크 키트를 이용장애인 가정으로 배송해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케이크 제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 바리스타 김재진

저는 매일 아침 파니스 카페를 열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카페 불을 켜고 오픈을 위한 준비를 해요. 카페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아요. 매일 새로 나온 빵을 반듯하게 정리해놓으면 기분이 좋아요. 2021년에는 파니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맛있는 빵과 따뜻한 커피가 있는 파니스 카페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용인원 9,960명

직업 지원

9,612명

교육 지원

348명

| 자립사업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의 꿈을
당당히 펼치는 커피전문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활한 매장 운영은 어려웠지만, 깊고 진한 커피 향은 더욱 멀리 퍼졌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원두 드립백을 제조하고, 클라우드 펀딩에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통신판매도 시작하며, 값진 경험과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제작하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용인원 7,167 명

직업 지원
7,135명

교육 지원
32명

종로점 부점장 이세민

부점장으로 승진을 해서 놀라기도, 기쁘기도 했어요. 장애인 직원도 부점장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동료들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동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면 누구나 부점장이 될 수 있어요.

| 자립사업



발달장애 청년농부가
즐겁게 일하며 자립하는 스마트농장

농작물의 수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길보다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농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딸기, 버섯, 청계, 양봉장을 새롭게 들였습니다. 농작물 수확 외에 감자·고구마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수익이 창출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는 발달장애인으로 일구는 발과 농작물이라는 인식이 자라났습니다.



이용인원 5,037 명

직업 지원
4,625명

교육 지원
412명

청년농부 장재호

농장에서 아름다운 꽃도 많이 보고, 직접 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특히 캐모마일, 메리골드 꽃을 만질 때 퍼지는 향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내 손으로 채취해서 말린 꽃차를 방문객들이 사갈 땐 뿌듯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꽃차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사회통합 사업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다름을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통합의 길이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화합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육활동



19,673명

독서활동



21,211명

출간 누적 도서



26권

사회통합사업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MAPO PURME SPORTS CENTER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체육문화를 주도하는 통합체육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한시적 긴급 개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활 공백을 메꾸었습니다. 외부활동 제한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정서적 교감을 위한 '비대면 운동지도'와 '찾아가는 재활운동교실'도 신설했습니다.



성인수중재활 참여자 최혜명

소아마비로 인해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사용해 걷는데, 통증 완화와 재활을 위해 성인수중재활을 수강했어요. 수중재활을 시작한 지 1년 후, 가까운 곳은 지팡이 없이 이동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놀라기도 했죠. 비대면 운동 지도 덕분에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이용인원 19,673명

재활체육
10,920명

통합체육
8,753명

| 사회통합사업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나는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책을 읽고 성장하는 도서관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이 대면의 통로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휴관 중에도 장애와 상관없이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문화 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 예술 강의로 팝업 아티스트와 창작물을 만들며 어린이들의 불안한 정서를 순화했으며, 청소년들은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을 다시 만나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꿈이 성장

온라인 독서동아리 푸른꿈 참가자 조수민

학교도 못 가고 도서관도 문을 닫아 답답했는데 친구들과 줌으로 독서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했어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친구들 모두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열심히 토론하고 있어요.

이용인원 21,211명

도서 열람
10,229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1,509명

도서 대출
9,473명

| 사회통합사업



도서출판

장애와 비장애를 품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유럽과 일본의 케어팜, 그리고 발달장애 청년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푸르메소셜팜' 사업을 기록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농장을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행복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그냥, 은미>를 출간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도서를 함께 만드는 출판사들은 작가의 인세와 출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농장을 만듭니다> 추천사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이정모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장애 청년과 치매 노인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농장, 스마트팜에서라면 누구나 노련한 농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푸르메소셜팜부터 네덜란드의 베쥬크 농장까지, 전 세계 스마트팜의 최전선을 소개합니다.

출간 도서 2권 누적 26권

인세 기부
8,182,105원

장애 인식조사

푸르메재단 15주년,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설립 15주년을 맞아 기부자님께 재단의 사업 가치를 알리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부자님들의 관심을 확대하고자 ‘장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본 조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기부자님께 지속적으로 푸르메재단의 사업 가치를 공유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축적될수록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앞으로의 15년, 청년으로 성장할 푸르메재단이 지금껏 그래왔듯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지표로 삼을 기록의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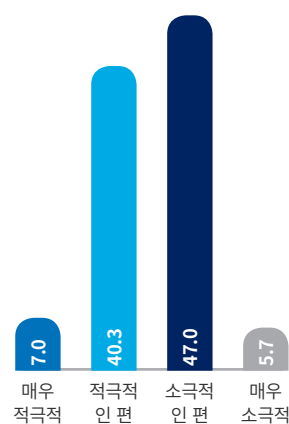
- 조사기간 2020년 11월 17~23일
- 표본추출 조사대상자 내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
- 응답방식 온라인조사(Online Survey)
- 조사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만 19세~64세 중 현재 비영리기관 기부자 600명
- 응답률 20%(총 접촉 3,019명 중 6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응답결과

Q. 당신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부자들은 평소 장애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7%, 적극적인 편이다 40.3%, 소극적인 편이다 47%, 매우 소극적이다 5.7%로 응답되어,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스스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그림 I]

[그림 I] (단위: %)



Q.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인가?

비장애 기부자들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지원은 경제적 지원(27%), 의료적 지원(24%), 일상생활 지원(21%), 직업생활 지원(16%), 심리적 지원(10%), 문화여가 지원(3%) 순이었다. 조사항목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 조사에서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보장(41%), 고용보장(9%), 주거보장(5%), 의료보장(28%), 장애인건강관리(6%) 등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표 I>

<표 I> 국가와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본조사	지원률	장애인실태조사(2017, 보건복지부)	지원률
경제적 지원	27.0	소득보장	41.1
		주거보장	5.1
의료적 지원	23.7	의료보장	27.7
		장애인건강관리	6.0
일상생활 지원	21.0	이동권보장	3.0
		의사소통/정보접근참여보장	0.5
직업생활 지원	15.5	재난안전관리	0.3
		고용보장	9.2
심리적 지원	10.2	보육교육보장	1.2
문화여가 지원	2.6	장애인인권보장	2.5
		장애인인식개선	2.0
계	100.0	문화여가생활/체육활동보장	1.4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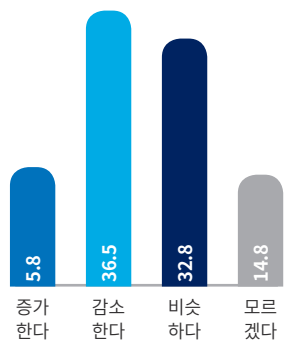
*장애인실태조사 ‘기타(0.2%)’ 제외 100%로 재환산

Q. 2020년 대비 2021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그림 II]

(단위: %)

푸르메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발달장애청년 자립사업인 ‘푸르메소셜팜’ 사업의 원년이 될 2021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망은 2020년 대비 감소(36.5%)하거나 비슷할 것 같다(32.8%)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본 지표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림 II]



Q. [OX퀴즈] 당신은 ‘장애’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기부자들은 장애와 관련한 질문에서 70%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몸이 아프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질문에는 48%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림 III]

[그림 III] OX퀴즈 정인지율

(단위: %)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 69.8
한국의 장애인 수보다 미국의 장애인 수가 더 많다	○ 67.8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몸이 아프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 47.8
시각장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 68.8
방송 등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은 이 말을 좋아한다	× 79.8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피부색과 성별, 체질 등이 각기 다르듯 장애는 개인이 가진 한 가지 특성일 뿐이다. 장애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차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들이 평소 쉽게 사용하는 ‘장애를 앓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비장애인은 장애를 몸이 아픈 것으로 인식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가 비장애와 다른 상태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푸르메와 사람들:
이종범·이정후,
김민재 홍보대사

장애어린이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이종범·이정후입니다.

우선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들이 잘 치료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되어 기쁩니다. 무엇보다 부자(父子)가 함께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2021년에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고, 경기도 여주에 짓는 푸르메소셜팜도 완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이 잘 교육받으며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좋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푸르메소셜팜이 장애청년들에게 따뜻한 일터가 되어, 그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덕분에 2020년에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듯 저희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장애어린이가 희망을 키우고, 장애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푸르메재단도 앞으로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어린이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김민재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푸르메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예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온 터라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봉사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장애어린이, 장애청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놀고, 푸르메소셜팜에서 장애청년들과 어울릴 그 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축구팀에서 제 포지션은 센터백(Center Back)입니다. 패널티박스 앞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하며 팀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축구에서처럼 장애어린이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라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르메재단도 장애어린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장애청년이 더 나은 일터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힘껏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메 소개

미션·비전·주요사업·조직
이사회·홍보대사·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미션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도록
사회변화를 선도한다

비전

혁신적 재할 및
자립 서비스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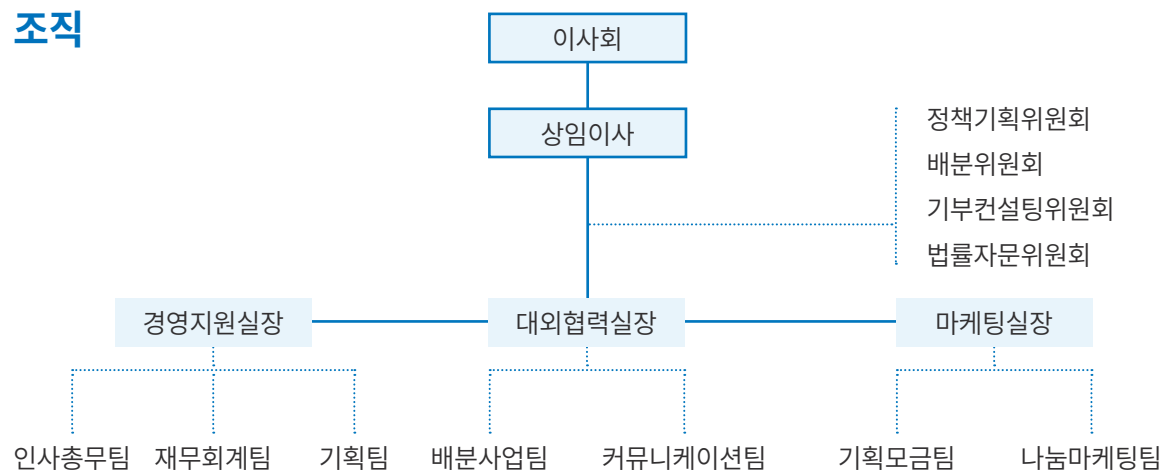
핵심가치

전문성, 혁신성,
투명성, 대중성

주요사업

- 배분**-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 의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 사회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출판**-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조직



이사회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명예이사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우리마을 촌장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공동대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상임이사 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



이사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



이사 원택 스님
해인사 백련암 주지



이사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윤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병원장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백은령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최명범
효성 부사장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사 김문규
태율회계법인 이사



감사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보대사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엄홍길
산악인



션
가수



이지선
작가·교수



서경덕
홍보전문가



이근호
축구선수



이은미
가수



이종범
야구코치·前 야구선수



이정후
야구선수



김민재
축구선수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이종수 위원장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동건 울산MBC 사장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재권 前 한겨레 선임기자
이은애 씨즈 이사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분위원회 배분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사·선정합니다.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송동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곽재복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우창윤 서울시의회 시의원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은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김은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김희정 서울의료원 사회사업팀 팀장	이민종 前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두정희 前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실장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장
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	이원일 푸르메재활센터 센터장
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이학준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조명민 장애인 부모
박유경 종로아이존 센터장	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의원 원장
서경주 前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고문	최진희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영유아발달연구소 소장
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재단의 법률문제를 자문·지원합니다.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산하기관 현황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재활센터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전문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1~2층
T. 02-6395-7000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5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c.modoo.at

파니스(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0
H. seoulpanis.modoo.at

푸르메마트팜 서울농원
장애청년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725
T. 031-572-4025
H. purmefarm.modoo.at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7

푸르메소셜팜·푸르메여주팜
장애청년에게 농업을 통해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